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김 보 경

민 병 배[†]

마음사랑 인지치료 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기질, 성격,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 기질 및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학교 1, 2, 3학년 30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질 및 성격 검사(JCTI)와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 및 우울 척도(CES-DC)를 포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우울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은 위험회피와 자율성으로 나타났으며, 자극추구와 지각된 양육행동 중 돌봄 및 과잉간섭 요인도 우울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우울에 대한 각 변인의 독립적인 경로만을 설정한 단순효과모형에 비해 자율성을 매개로 하는 경로를 포함한 매개모형의 적합도가 더욱 양호하였다. 위험회피와 지각된 양육행동은 각 변인으로부터 우울로 향하는 직접효과와 자율성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자극추구는 자율성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높은 위험회피 성향과 낮은 자율성,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우울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질 및 지각된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자율성과 같은 성격적인 성숙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기질, 성격, 부모 양육 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민 병 배 / 마음사랑 인지치료 연구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1
FAX : 02-511-4427 / E-mail : minbb@maumsarang.co.kr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인 취약 요인들로서 개인의 인성 (personality)¹⁾ 특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우울에 취약한 인성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Cloninger (1987)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은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인성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Cloninger는 기존의 인성 모델들이 학습 이론 및 학습 과정 기저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들과 잘 통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쌍생아 연구, 가계 연구, 장기종단 연구, 신경약물학, 신경해부학 및 신경행동학 연구, 그리고 심리측정적 연구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유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기질 (temperament) 모델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기질 차원은 자극 추구 (Novelty Seeking), 위험 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그리고 인내력 (Persist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극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를 추구하는 성향, 혹은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말하며,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및 도파민 기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 회피는 처벌이나 위협의 신호, 혹은 보상부재의 신호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며,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및 세로토닌 기제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에서의 개인차, 즉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

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어에피네프린 기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내력은 지속적 강화가 없이도 이전에 보상된 행동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로, 행동 유지 체계(Behavioral Maintenance System; BMS)와 관련된다.

이러한 기질 모델은 각 기질 차원의 조합으로 성격장애의 전통적인 하위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Cloninger, 1987). 그러나 Cloninger, Svrakic과 Przybeck(1993)는 기질 차원만으로는 성격장애의 여부 및 적응 정도를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같은 기질 유형 내에서 잘 적응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 세 가지 성격 (character) 차원을 추가한 인성모델을 제시하였다.

성격 차원은 자율성(Self-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 그리고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성은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반영하며, 행동에 대한 통제력, 책임감, 자존감,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연대감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인류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되며, 타인과의 동일시, 타인에 대한 수용, 자비, 양심과 관련된다. 자기초월은 개인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정도를 반영하며, 우주만물과의 일체감, 영성 및 종교적 신앙의 수용, 조건에 관계없이 평온함과 감사를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

Cloninger 등(1993)에 따르면, 성격은 기질과

1) 본 논문에서는 한국판 JTCI의 번역에 따라 personality를 '인성'으로, character를 '성격'으로 기술하였다.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 개념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경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기질 차원들과 구별된다. 어떤 환경 자극이 지각되면 일단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는 자기 개념에 의해 자극에 부여된 의미가 변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즉 같은 기질 유형을 지닌 개인들이라도 성격 발달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심리적 적응 및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l(1994)은 위 모델에 근거하여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연구가 다양한 1축 및 2축 장애들에 대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오고 있다.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각 기질 및 성격 차원들과 성인 임상 및 비임상군의 우울수준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높은 위험회피 성향과 낮은 자율성이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어오고 있다(임진현, 2004; 한창환, 2003; Grucza, Przybeck, Spitznagel, & Cloninger, 2003; Peirson & Heuchert, 2001; Richter & Eisemann, 2002; Richter, Eisemann, & Richter, 2000; Richter, Polak, & Eisemann, 2003; Smith, Duffy, Stewart, Muir, & Blackwood, 2005). 또한 위험회피 수준이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면서 우울증의 약물치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왔다(김봉석, 2004; Chien & Dunner, 1996; Cloninger, Watson, & Isaac, 1997; Joffe, Bagby, Levitt, Regan, & Parker, 1993; Tome, Abrams, Yune, Kim, Jeon, Han, Hwang, Sung, Lee, & Lyoo, 2004).

그러나 아직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우울에 대한 기질과 성격 차원 각각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많지만, 두 차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성숙도에 따라 기질 특성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개인의 기질 특성 및 성격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울의 원인론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성인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회고적 보고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되었다. 특히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한 PBI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조사하는 질문지로서, 정서적 보살핌, 애정, 공감, 친밀성과 냉담함, 무관심, 무시 등을 측정하는 돌봄(care) 차원과 과잉보호, 사생활 침입, 간섭 통제와 독립 및 자율성 격려 등을 측정하는 과보호(overprotection)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PBI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낮은 수준의 돌봄과 높은 수준의 과보호가 임상 및 비임상군의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Carter, Joyce, Mulder, Luty, & Sullivan, 1999; Crook, Raskin, & Eliot, 1981; Paker, Hadzi-Pavlovic, Greenwald, & Weissman, 1995; Narita, Sato, Hirano, Gota, Sakado, & Uehara, 2000; Parker, 1979). 다만 돌봄에 비해 과보호 요인은 우울과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못하게 보고되고 있어 PBI의 요인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최근 연구들은 과보호 요인을 다시 두 요인으로 분류한 세 요인 구조가 더욱 적합함을 제시하고 있다 (Heider, Matschinger, Bernert, Vilagut, Martinez-Alonso, Dietrich, & Angermeyer, 2005; Mohr, Preisig, Fenton, & Ferrero, 1999; Narita et. al., 2000; Reti, Samuel, Eaton, Bienvenu, Costa, & Nestadt, 2002).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도 과보호 요인을 자율성 존중과 과잉간섭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율성 존중 요인은 과잉간섭보다 들봄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료 분석 전에 PBI의 요인구조를 확인해보았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저조한 들봄이 매우 일반적인 취약요인임을 지적하면서, 부모 양육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이 관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TCI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상 성인 집단에서 부모의 저조한 들봄과 과도한 통제가 높은 위험회피 및 낮은 자율성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Reti, et. al., 2002). 또한 부모의 정서적 따뜻함은 사회적 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따뜻함의 결핍과 거부가 높은 위험회피와 낮은 자율성발달의 취약요인으로 확인되었다(Schlette, Brändstör, Eisemann, Sigvardsson, Nylander, Adolfsson, & Perris, 199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방식이 우울에 취약한 기질 및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그 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인관계적 기능, 낮은 자존감, 역기능적 인지 패턴, 성취지향성 및 관계

지향성 등이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성인기 우울 간의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옥진, 1998; Carter et. al., 1999; Parker, 1993; Whisman & Kwon, 1992).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서는 대인민감성과 신경증적 특성 등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성격적인 특성이 양육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Duggan, Sham, Minne, Lee, & Murray, 1998; Rodgers, 1996; Sakado, Kuwabara, Sato, Uehara, Sakado, & Someya, 2000), 아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TCI의 성격 차원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우울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 요인인 기질 및 성격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우울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성인보다 생물학적인 기질 특성과 성격적인 성숙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심리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 차원,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중에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질 및 지각된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격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각각 우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우울의 발생과 유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 및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1학년 98명, 2학년 113명, 3학년 97명, 총 308명(남자 148명, 여자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의 평균 연령은 13.43세(SD=.98)였으며, 남자는 13.41세(SD=.96), 여자는 13.46세(SD=.99)이었다.

평가도구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Cloninger 등(1994)이 제작한 TCI를 바탕으로 독일의 Schmeck, Meyenburg와 Poustka(1995)가 JTCI 12-18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오현숙과 민병배(2004)가 Cloninger와의 협의 하에 독일형 JTCI 12-18을 표준화하였다.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4가지 기질 차원과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3가지 성격 차원을 측정하며, 인내력을 제외한 각각의 척도들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JTCI는 4점 척도의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규준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BI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Parker 등(1979)이 개발하였으며,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Gamsa(1987)가 5개의 부정문항을 긍정문항으로 개정한 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청소년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자료분석 이전에 PBI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과보호 차원이 하위 두 요인으로 나뉘어 총 세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각각 정서적 보살핌 및 따뜻함과 관련되는 '돌봄' 요인(문항 1, 2, 4, 5, 6, 11, 12, 14, 16, 17, 18, 24)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내용의 '자율성 존중' 요인(3, 7, 15, 21, 22, 25),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침입적 행동과 관련되는 '과잉간섭' 요인(9, 10, 13, 20, 23)으로 명명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였고, 둘 간의 상관이 돌봄 요인의 경우 $r(308) = .55(p < .01)$, 자율성 존중 요인의 경우 $r(308) = .62(p < .01)$, 과잉간섭 요인의 경우 $r(308) = .72(p < .01)$ 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간의 양육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아버지 자료는 .89, .78, .56, 어머니 자료는 .88, .77, .65이었다.

아동용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for Children; CES-DC)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CES-D를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제작한 것으로, CES-D와 동일한 문항 구성과 채점 방식을 갖고 있다.

(Weissman, Orvaschel, & Padian, 1980). CES-DC는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상실, 수면장애 등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 증상을 4점 척도로 평가하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자료분석

응답 자료들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와 요인 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검증을 위해 Amos 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으며, 모형의 적절성과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홍세희(2000)의 논문에서 관한 GFI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합치들은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카이 제곱 검증, 즉 χ^2 확률치(p값)를 사용하여 χ^2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다고 보는 검증 방법은 χ^2 값이 표본의 크기와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합도 지수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Bentler & Bonett, 1980), 전체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는 고려하지 않았고, 경로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 검증에만 이용하였다.

결 과

기질, 성격, 지각된 양육행동 및 우울의 상관분석

기질, 성격,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우울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중에 위험회피와 자율성이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위험회피는 우울과 정적 상관을, $r(308)=.51, p<.01$, 자율성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308)=-.53, p<.01$. 그 외에 자극추구가 우울과 약하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연대감은 우울과 약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과 성격 차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극추구와 위험회피는 자율성 및 연대감과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히 위험회피는 자율성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08)=-.52, p<.01$.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자율성 및 연대감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초월은 대부분의 변인들과 경미한 상관만을 나타내었다.

지각된 양육행동 중에서는 돌봄 요인과 자율성 존중 요인이 우울과 부적 상관을, $r(308)=-.38, p<.01$; $r(308)=-.33, p<.01$, 과잉간섭 요인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308)=.29, p<.01$). 양육행동과 기질 간의 관계를 보면, 돌봄 및 자율성 존중 요인은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와 부적 상관을, 나머지 기질 및 성격 차원의 하위 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과잉간섭 요인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기질, 성격, 지각된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기질과 성격,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각각에서 하위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자극추구	1.00										
2. 위험회피	.05	1.00									
3. 사회적민감성	.05	-.13*	1.00								
4. 인내력	-.33**	-.16**	.33**	1.00							
5. 자율성	-.21**	-.52**	.20**	.46**	1.00						
6. 연대감	-.36**	-.15**	.40**	.48**	.31**	1.00					
7. 자기초월	.01	.13*	.15*	.29**	.03	.19**	1.00				
8. 돌봄	-.22**	-.14*	.18*	.36**	.34**	.27**	.16**	1.00			
9. 자율성준중	-.20**	-.14*	.14**	.27**	.34**	.20**	.12*	.65**	1.00		
10. 과잉간섭	.26**	.16**	.02	-.20**	-.26**	-.13*	.05	-.21**	-.35**	1.00	
11. 우울	.25**	.51**	-.11*	-.25**	-.53**	-.25**	.07	-.38**	-.33**	.29**	1.00
M	20.99	20.94	16.42	13.17	20.26	25.11	16.90	51.99	24.36	10.09	18.79
(SD)	(6.52)	(6.86)	(4.56)	(3.69)	(5.81)	(5.79)	(4.79)	(12.23)	(6.59)	(5.47)	(10.68)

* $p < .05$, ** $p < .01$.

표 2. 우울에 대한 기질, 성격, 지각된 양육행동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R^2	F	β	t	
기질차원	.324	36.34***	자극추구	.20	3.91***
			위험회피	.48	10.01***
			사회적 민감성	-.03	-.55
			인내력	-.09	-1.74
성격차원	.303	43.96***	자율성	-.50	-10.00***
			연대감	-.11	-2.16
			자기초월	.10	2.11
양육행동	.189	23.69***	돌봄	-.29	-4.22***
			자율성 준중	-.07	-1.01
			과잉간섭	.20	3.66***

*** $p < .001$.

비교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질 차원은 전체 변량의 32.4%를 설명하였으며, 성격 차원은 30.3%, 지각된 양육행동은 18.9%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F(4, 307)=36.43, p<.001$; $F(3, 307)=43.96, p<.001$; $F(3, 307)=23.69, p<.001$.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기질 차원 중에서는 위협회피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자극추구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차원 중에서는 자율성만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양육행동의 경우 돌봄과 과잉간섭 요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질 및 성격 차원과 지각된 양육행동을 모두 함께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율성, 위협회피, 돌봄, 자극추구, 과잉간섭 변인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43.4%를 설명하였다, $F(5, 307)=46.30, p<.001$.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기질 차원 중에서는 위협회피, 성격 차원 중에서는 자율성, 지각된 양육행동 중에서는 돌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자극추구와 과잉간섭 변인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변인들은 우울에 대해 의

미 있는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질, 성격, 지각된 양육행동 및 우울의 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이론적 배경에 제시한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기질과 지각된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시행하였다. 기질과 성격차원 중에서는 회귀분석에서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 위협회피와 자극추구, 자율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자극추구와 위협회피는 앞의 상관분석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독립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을 구분하여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각 척도의 네 가지 하위 척도들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지각된 양육행동은 요인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돌봄과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 요인 중 회귀분석 결과에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돌봄과 과잉간섭 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측정구조를 검증한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GFI=.96, NFI=.92, TLI=.98, CFI=$

표 3. 우울에 대한 기질, 성격, 지각된 양육행동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R^2	ΔR^2	F	β	t
기질, 성격 및 양육행동	1 자율성	.285		121.90***	-.239	-4.36***
	2 위협회피	.359	.075	85.56***	.338	6.61***
	3 돌봄	.409	.050	70.16***	-.205	-4.36***
	4 자극추구	.426	.016	56.13***	.113	2.46*
	5 과잉간섭	.434	.008	46.30***	.097	2.11*

* $p<.05$, *** $p<.001$.

.98, RMSEA=.03).

이론구조 검증에서는 기질, 양육행동, 자율성에서 우울로의 직접경로만을 설정한 단순효과 모형과 기질 및 양육행동에서 자율성을 매개하는 간접경로를 함께 포함한 매개모형을 검증하여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매개모형의 적합도가 더욱 양호하게 나타났다(GFI=.95, NFI=.91, TLI=.96, CFI=.97, RMSEA=.04). 매개모형의 경우 자극추구에서 우울로 향하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자율성이 위험회피와 지각된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자극추구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 즉 자극추구에서 우울로 향하는 직접경로의 계수를 0으로 고정시켜 제거한 수정된 매개모형과 매개모형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접경로가 의미 있는 설명력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_{diff}(1)=3.56, p>.05$).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된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자유도와 모형의 간명성 측면을 고려하여 경로를 제거하기로 하였다(GFI=.95, NFI=.90, TLI=.96, CFI=.97, RMSEA=.03). 수정된 매개모형의 적합도가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경로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위험회피의 경우 우울에 미치는 표준화된 직접효

표 4.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GFI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92.01	76	.96	.92	.98	.98	.03
단순효과모형	243.41	90	.92	.81	.83	.87	.08
매개모형	122.54	87	.95	.91	.96	.97	.04
수정된 매개모형	126.10	88	.95	.90	.96	.9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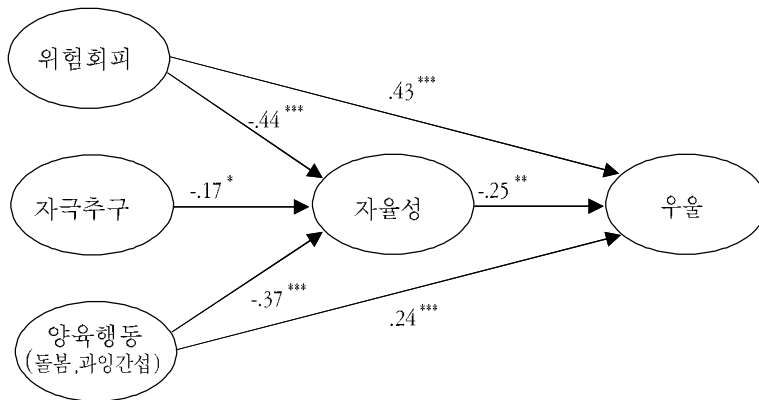


그림 1. 수정된 매개모형의 경로도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05$, ** $p<.01$, *** $p<.001$)

과는 .43, 간접효과는 .11, 전체효과는 .54였으며, 자극추구의 우울에 대한 표준화된 간접효과이자 전체효과는 .04이었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우울에 대해 표준화된 직접효과 .24, 간접효과 .09, 전체효과 .33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성은 -.25의 효과를 보였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위협회피가 -.44, 자극추구가 -.19, 양육행동이 -.37의 표준화된 효과를 미쳤다. 각 변인의 전체효과가 우울을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의 52%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집단에서 기질과 성격,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상관 및 회귀분석에서 우울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기질차원 중에서는 위협회피가, 성격차원 중에서는 자율성이, 지각된 양육행동 중에서는 돌봄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이다(Brown et. al., 1992; Carter et. al., 1999; Grucza et. al., 2003; Joyce et. al., 1999; Narita et. al., 2000; Paker et. al., 1995; Peirson et. al., 2001; Richter et. al., 2000; Richter et. al., 2003). 즉 높은 위협회피 성향과 저조한 자율성 발달, 지각된 낮은 부모의 돌봄은 청소년 우울에 있어서 중요한 생물학적, 성격적, 환경적인 취약요인으로 시사된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청소년의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격적인 성숙도를 반영하는 자율성이 부분적인 매개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격의 성숙도에 따라 기질 특

성이 다르게 발현되어 심리적인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Cloninger 등(1993)의 이론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환경에 대한 기질의 자동적인 정서 반응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성격의 성숙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험회피는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과 관련이 높은 기질적 특성으로 확인되어왔다.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개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벌 및 위험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긴장하고, 미리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 걱정이나 비관적인 사고에 빠져드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면은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울증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물치료 후에 위험회피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들은 위험회피 수준이 우울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태적 지표(state marker)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우울 수준이 위험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치료 전과 치료 후 시점 모두에서 우울집단의 위험회피수준이 통제집단보다 높았고, 특히 주요우울증 집단 및 기분부전장애 집단보다 우울성 성격장애 집단이 더 높은 위험회피 수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Abrams et. al., 2004; Richter et. al., 2000)는 위험회피 수준이 우울에 대한 특질적인 지표(trait marker)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위험회피가 우울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울을 예측하는 취약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높은 위험회피

수준이 갖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은 적극적으로 잠재된 보상 자극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욕구좌절에 대해 쉽게 흥분하고 분노감을 느끼거나 의욕이 상실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비행이나 반사회적 특성, 물질 사용, 섭식장애 등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왔으며, 우울과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추구가 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자극추구 자체가 우울에 대한 직접적인 취약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에 취약한 성격특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증 환자에게서 자살과 충동성이 높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자극추구도 우울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율성이 낮은 개인은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며 자신의 한계나 책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책하거나 외부 환경 및 대상을 원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목표나 가치에 따라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여 적응하기보다 외부 환경의 자극과 압력에 의해 이끌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자율성이 낮은 경우,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활사건 등에 의해 쉽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저하되기 쉬울 것이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자율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기질적인 특성을 수용하고 조절하면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해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울에 보호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성이 기질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CI를 사용한 기존의 치료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위험회피 수준과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에만 주목해왔다(김봉석, 2004; Abrams, et. al., 2004; Chien et. al., 1996; Joffe et al., 1993; Tome et. al., 1997). 자기개념 및 가치, 자존감, 자기 수용 등과 관련된 자율성이 기질 및 환경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치료 외에 이러한 인지적, 성격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이 우울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지각된 낮은 돌봄, 즉 부모의 무관심, 냉담함, 거부, 무시와 높은 과잉간섭, 즉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침입적 행동은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이나 우울 수준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PBI의 회상적 보고 내용이 현재의 우울수준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고, PBI가 단지 주관적인 지각이 아니라 실제 양육행동을 반영한다는 쌍생아 및 형제 연구들도 있었다(Parker, 1981, 1989; Mackinnon, Henderson, & Andrews, 1991; McCrae and Costa, 1998). 또한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및 표상이 심리적 적응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PBI 자료의 신뢰도와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Parker, 1983; Rutter, 1981).

상관분석결과 돌봄 및 자율성 존중 요인은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와 부적인 관계를 지니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과는 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잉간섭 요인은 반대 양상을 보이는 등 지각된 양육행동 요인과 기질 차원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기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들(Bates, Pettit, Dodge, & Ridge, 1998; Belsky, 1997; Bronfenbrenner & Morris, 1998; Coldor, Lockman, & Wells, 1997; Fowles & Kochanska, 2000; Lengua & Kovacs, 2005; Rubin, Nelson, Hastings, & Asendorpf, 1999) 과 성격특성이 기질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는 것이라는 Cloninger(1987)의 이론 등을 고려할 때, 기질과 지각된 양육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자율성 및 우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기질 차원이 어떠한 양육행동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성격발달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울의 예방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우선 이상의 결과는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연령 및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취약요인으로서 기질 및 성격,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우울의 약 52%정도를 설명하였는데, 그 외에 또래관계, 외상경험, 인지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청소년 우울의 발생 및 유지 기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험회피의 특질적 지표로서의 효과와 안정적인 지표로서의 효과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봉석 (2004). 주요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증 약물치료전후 위험회피성의 변화.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 오육진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성 및 성취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 검사. 서울: 마음사랑.
- 임진현 (2005). 우울-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개념 및 정서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창환 (2003).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Abrams, K. Y., Yune, S. K., Kim, S. J., Jeon, H. J., Han, S. J., Hwang, J., Sung, Y. H., Lee, K. J., & Lyoo, I. K. (2004). Trait and state aspects of harm avoidance and its implication for treatment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ysthymic disorder, and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8, 240-248.
- Bates, J. E., Pettit, G. S., Dodge, K. A., & Ridge, B. (1998). Interaction of temperamental resistance to control and restrictive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4, 982-995.
- Belsky, J. (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 230-235.
- Bentler, P. M., & Bon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 993-1028.
- Carter, J. D., Joyce, P. R., Mulder, R. T., Luty, S. E., & Sullivan, P. F. (1999). Early deficient parenting in depressed patients i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dysfunction and not with depressive subtyp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4, 29-37.
- Chien, A. J., & Dunner, D. L. (1996).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major depression: state versus trait issu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0, 21-27.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Colder, C. R., Lockman, J. E., & Wells, K. C. (1997).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fear and activity level on relations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hood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251-263.
- Crook, T., Raskin, A., & Eliot, J. (1981).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ult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2, 950-957.
- Duggan, C. F., Sham, P., Minne, C., Lee, A., & Murray, R. (1998). Quality of parenting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results from a family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28, 185-191.
- Fowles, D. C., & Kochanska, G. (2000). Temperament as a moderator of pathways to conscience in children. *Psychophysiology*, 37, 788-795.
- Gamsa, A. (1987).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Th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291-294.
- Gruza, R. A., Przybeck, T. R., Spitznagel, E. L.,

- & Cloninger, C. R. (2003).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123-130.
- Heider, D., Matschinger, H., Bernert, S., Vilagut, G., Martinez-Alonso, M., Dietrich, S., & Angermeyer, M. C. (2005). Empirical evidence for an invariant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PBI in six European countries. *Psychiatry Research, 135*, 237-247.
- Joffe, R. T., Bagby, R. M., Levitt, A. J., Regan, J. J., & Parker, J. D. (1993).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majo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959-960.
- Lengua, L. J., & Kovacs, E. A. (200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1-38.
- McCrae, R. R., & Costa, P. T. (1998). Recalled parent-child relations and adult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56*, 417-434.
- Mckinnon, A. J., Henderson, A. S., & Andrews, G. (1991).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a measure of perceived or actual parental behaviou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3*, 153-159.
- Mohr, S. Preisig, M., Fenton, B. T., & Ferrero, F. (1999). Validation of the French vers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1065-1074.
- Narita, T., Sato, T., Hirano, S., Gota, M., Sakado, K., & Uehara, T. (2000).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s measured by the PBI in Japanese population: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ship to a lifetime history of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 229-234.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G. (1981).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anxiety neurosi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3*, 33-36.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Sydney: Grune & Stratton.
- Parker, G. (1989). Validating on experimental measure of parenting style: the use of a twin samp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3*, 22-27.
- Parker, G. (1993). Parental rearing style: examining for links with personality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8*, 97-100.
- Parker, G., Hadzi-pavlovic, D., Greenwald, Steven, & Weissman, M. (1995). Low parental care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3*, 173-180.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 Peirson, A. R., & Heuchert, J. W.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mood: comparison of the BDI and TCI. *PAID 30*, 391-399.

- Reti, I. M., Samuels, J. F., Eaton, W. W., Bienvenu, O. J., Costa, P. T., & Nestadt, G. (2002). Influences of parenting on normal personality traits. *Psychiatry Research*, 111, 55-64.
- Richter, J., & Eisemann, M. (2002). Self-directedness as a cognitive feature in depressive 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327-1337.
- Richter, J., Eisemann, M., Richter, G. (2000).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in healthy adults: two related concepts? *Psychopathology*, 33, 36-42.
- Richter, J., Polak, T., & Eisemann, M. (2003). Depressive mood and character among the normal population and depressive in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917-927.
- Rogers, B. (1996). Reported parental behavior and adult affective symptoms, 2. Mediating factors. *Psychological Medicine*, 26, 63-77.
- Rubin, K. H., Nelson, L. J., Hastings, P., & Asendorpf, J. (1999). The transac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shyness and their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937-958.
- Sakado, K., Kuwabara, H., Sato, T., Uehara, T., Sakado, M., & Someya, T.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dysfunctional parenting in childhood, and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0, 47-51.
- Schlette, P., Brändstöm, S., Eisemann, M., Sigvardsson, S., Nylander, P., Adolfsson, R., & Perris, C. (1998).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urs and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healthy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661-668.
- Smith, D. J., Duffy, L., Stewart, M. E., Muir, W. J., & Blackwood, D. H. (2005). High harm avoidance and low self-directedness in euthymic young adults with recurrent, early-onse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7, 83-89.
- Tome, M. B., Cloninger, C. R., Watson, J. P., & Isaac, M. T. (1997). Serotonergic autoreceptor blockade in the reduction of antidepressant latency: personality variables and response to paroxetine and pindolol.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44, 101-109.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 (1980). Children's symptom and social functioning self-report scales: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orders*, 168, 736-740.

원고접수일 : 2005. 10. 21.

게재결정일 : 2006. 1. 19.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Temperament, Character,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Bo Kyung Kim

Byoung Bae Min

Maumsarang Institute for Cognitive Therap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haracter on depression. A total of 308 adolescents were administered self-report measures of Junior Temperament Character Inventory(JTCI),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 an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for Children (CES-DC). The results indicated that harm avoidance and self-directedness were most important variables associated with depression. Novelty seeking and perceived parental care and intrusion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harm avoidance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had both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self-directedness on depression. The effects of novelty seeking were found to be completely mediated through self-directed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 harm avoidance, low self-directedness, and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are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the influences of temperament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depression may partially depend on the maturity of character in adolescenc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depression, temperament, character, parenting behavior, adolescent